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 경윤모 알렉시오 신부(동향성당 주임)

**입 당 송**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 1 독 서** 스바니야 예언서 3,14-18ㄱ

**화 답 송** 이사 12,2-3.4ㄴㄷ.5-6 (©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후렴)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1.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2.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3.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 독 서** 필리피서 4,4-7

**복 음 환 호 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3,10-18

**영 성 체 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청소년사목국**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준비와 기다림의 대상이자 목적이시지만, 실제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행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의 의미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의 비중은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바로 이 점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알려준 확실한 방법, 마찬가지로 예수님

께서도 인정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회개’였지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단순한 정결 예식이나 의례적인 행위로서가 아닌, 회개를 전제하고 지향하는 표시로 세례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지요.

더군다나 그 세례는 회개의 시작이고 표시일 뿐, 완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 완성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실재 삶의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깊이 통회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고해소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

서 자동으로 다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신부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도 못합니다.

비록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세례 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받았지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예수님께도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요한의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강 영**  
이사야 신부  
대천성당 주임



우전  
한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No one can be excluded from the mercy of God.

캘리그래피,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12.13(월)~14(화)  
이강영 신부(대천성당 주임)  
12.15(수)~18(토)  
김재현 신부(장산성당 부주임)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2.12(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출연 :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윤진 비비안나  
12.22(수) <하늘타리>  
출연 : 노우재 신부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 부산교구 단계 책임자)



2022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해설 (2)

##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생활화합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2티모 3.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게시 헌장’ (11항)에서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쳐주고 정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로써 하느님의 사람이 모든 신앙을 쌓을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는 것이다.”(2티모 3.16-17 참조)

2021년 교구 사목지침 ‘신앙과 말씀의 해’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밀해집시다.”였습니다.

올해 사목지침 ‘성체와 말씀의 해’ 실천 사항도 ‘성경 통독하기’, 지난해에 이어 ‘가족이 함께 신약성경 필사하기’, 그리고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은 보다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고 다짐입니다. 즉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적당한 공간에서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쁜 시간을 틈내어 어디서든지 짬짬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성경 읽기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숙련된 성경 해

설가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순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면에서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맡기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친숙해지고, 그것을 늘 가까이 뒤야 하는 이유입니다. 호주머니나 핸드백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포켓 사이즈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으십시오.”(프란치스코 교

황님 2021년 10월 31일 주일 삼중기도 훈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일반 서적을 읽는 것과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를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느님 말씀은 모든 이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청년에게는 청년의 음성으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리 다가옵니다. 꼭 전문가가 되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둥과 버팀목과 영적 양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노(서기 354~430년)를 아시지요? 그는 387년 세례를 받았으나 그의 신

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은 정원에서 이웃 집 아이들이 부르는 이런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집어라, 읽어라”(Tolle, lege). 이 소리는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성인은 견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고서 벌떡 일어나 성경을 펴들었을 때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평정의 빛이 성인의 마음에 부어져 의혹의 모든 어둠이 흩어져버렸습니다. (고백록, 8권, 12장) 성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생활에 전념하였으며, 마침내 히포의 주교가 되어 공동체를 돌보고, 이단과 싸우며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성경 안의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 성 아우구스티노에게 들렸던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집어라, 읽어라.”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은총이 우리 삶 안에 가득 차도록 합시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미력하나마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소읍의 밤하늘에 뜬 손바닥만 한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동녘 하늘에서 크게 빛나며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별을 앞둔 마음이 별에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2학년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5살 터울 위인 언니가 수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목주를 원하지도 않는 제게 건네주고 가족의 반대도 물리치고 훌쩍 고향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당시 통학 중이었습니다. 동해에서 강릉,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학교에 다다르는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던 날은 부조처럼 십수 년이 지나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언니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과 그리움으

로 제게 세례명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언니가 보고 싶어 긴 시간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예수성심전교수녀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언니의 권유로 함께 앉은 경당에서 졸면서 들었던 청아한 새소리 는 이제 마음에만 새겨야 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신호철 비오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녀원에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허물기 전, 마지막으로 개방한 경당에 가 보았습니다. 오십 중반을 훌쩍 넘긴 제가 스무 살 초반 때 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더는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근육암으로 하늘나라로 간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옛날 언니가 수녀원으로 들어가던 날 제게 건네줬던 목주는 없

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으로 복잡했던 금정산 산길에 떨어져 있던 목주가 제 눈에 들어온 날 저는 멈춰 “주님,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는 외마디와 함께 주님께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안나로 불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언니가 항상 기도를 부탁했던 조카도 사제품을 받았습니 다. 언니는 불모지인 집안에 하느님 깃발의 씨알을 뿌린 별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언제나 곁에 머물며 인내하는 기다림의 명수인 듯합니다.

정연순 안나

금정성당 · 소설가  
statisjys@hanmail.net



##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6.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 환경도 해를 입었습니다.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의 훼손은 모두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악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 만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피조물이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다. 곧 “우리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피조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됩니다.”

『찬미받으소서』 3항~6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3항~6항 영상 보기  
낭독 : 울산대리구장 김영규 안셀모 신부



재활용 쇼핑백 사용하기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하기





2021  
2023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 "시노달리타스"의 여정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지난 10월 개막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2년 후에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교시노드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주로 소수의 주교님들끼리 모여 시노드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사제들이나 수도자, 평신도들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자연스럽게 시노드에 대한 관심도 무척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 백성의 음성을 아래로부터 경청하면서 시노드를 거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구 하느님 백성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안건으로 삼아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16차 주교시노드는 핵심 주제가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입니다. 말마디가 생소합니다만, 세례 받은 모든 이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며 교회의 본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교시노드 사무처는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질문지를 보내왔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교구는 시노달리타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서, 과연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까?" "함께 걸어가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진단하고, 원인을 알아보고, 대응책을 찾아가는 세 단계의 질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의 쇄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하십니다. 교회의 쇄신은 몇몇 엘리트들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의 의견을 듣고, 수도자들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제들의 마음을 느끼며,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 하느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저 말없이 무관심하게 억지로 따라가는 정태적이고 관료적인, 낡고 매력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교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 백성과 친교에 관한 교회론적 가르침이 실현될 역사적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느님 구원 사업에 참여하여 한층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제16차 주교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사랑과 친교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교회, 세상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주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시노드적 교회는 친교와 선교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3천년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 이 "시노드" 단어 안에 담겨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제1단계는 지역 교회별 단계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느님 백성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현 단계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구는 물론 한국과 전 세계 모든 교구에서 하느님 백성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 기관, 단체 별로 대화와 경청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신부님, 수녀님, 교우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기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종합한 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에 전달하여, 주교시노드 총회에서 논의하고 식별할 안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드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따르며, 담대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듣는 은총의 시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 노우재 미카엘 신부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부산교구 단계 책임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루카 3,16)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1년 간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절취선

**2022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1.7(금) 14:00 주교좌 남천성당**  
주례 :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교 구

**교구청 직원(사무직)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자격증 사본 / 자격 : PC(한글, 엑셀) 사용가능자  
접수 : 12.22(수)까지 / 문의 : 629-8733(판리국)

본 당

**옥동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자격 : PC(한글, 엑셀)사용 가능자, 회계가능자  
문의 : (052)261-6011, 6012

**괴정성당 성가대 반주자 구함**

서류 :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 207-3977(사무실)  
010-9289-6225(전례분과위원장)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12.13(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12.14(화) 10:00 아음성당  
문의 : 600-8800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12.13(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 유튜브 신부들-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 접근하는 사목  
강사 : 김희성 신부(신소재:가톨릭놀이터 운영자)  
문의 : 465-9508(미사 & 무료강의)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 12.14(화) 14:00 가톨릭센터 6층 체칠리아홀  
울산 : 교정 시설 방학으로 12월 후원 미사 없음  
문의 : 441-7729

**울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2.15(수) 기도 14:30 미사 15:00  
· 복산성당 소성전 / 주례 : 이광우 신부  
문의 : (052)201-6505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12.17(금) 10:30 / 세계조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성령새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100단 목주기도회  
· 12.13(월) 12:50~16:00  
-수요치유 기도회  
· 12.15(수) 13:00~15:00  
-금요 밤미사(송년의 밤)  
· 12.17(금) 20:30~22:30

**영성의집 직원 구함**

서류 : 이력서 / 숙식 제공합니다  
문의 : (055)382-9465

**도시민민사목 후원 미사**

· 12.13(월) 10:30 · 문현성당 / 문의 : 467-1045  
후원계좌변경 : 부산 101-2077-2523-00, 농협 301-0298-1668-4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도시민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새그릇 택배 및 직매 가능)  
문의 : 542-0242, 010-2886-6467, 467-1045

**군중후원회 부산 미사**

· 12.16(목) 10:30 · 금정성당  
주례 : 강인구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문의 : 751-361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2.18(토) 11:00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성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519-0471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2.21(화) 매월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 윤명기 신부 / 문의 : 010-8879-2376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교리가 힘든 신부 / 파견교리(본당) :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 462-0334(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그림 & 생활성가로 묵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

- 신청방법 :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에서 (부산교구달력) 채널 추가 후 신청
  - 내용 :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부수
- 판 매 가 : 3천원/1부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 입금 : (입금자명 : 성함+전화번호 끝 4자리)
  - 농협 301-2018-0726-51 천주교부산교구
- 입금자를 찾습니다! (전화주세요.)
  - 11/7 김진영 6,000원, 11/8 김복자 3,000원,
  - 11/9 원용자 6,000원, 11/10 이명희 15,000원,
  - 11/16 문순자 3,000원, 12/3 안연희 90,000원
- 보금 :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추후 공지)
- 문의 : 051-629-8750~2 (전산홍보국)

<p><b>서울공예사</b></p>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를로)·김경자(모니카)</p>	<p><b>50년 전통 명신당</b></p> <p>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b>010-3599-7885</b> <b>646-7885</b>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p>	<p><b>성모치과</b></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b>633-8228, 634-8228</b>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b>삼일누수탐지공사</b></p> <p>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b>202-3011</b> 이 국 영 (베드로)</p>	<p><b>성신익스프레스</b></p> <p>(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b>www.ss0924.com</b></p>
<p><b>친환경방역소독 바이박스</b></p> <p>바퀴벌레, 개미, 쥐 해충완전박멸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소독 전문화된 맞춤형 방역시스템 허정희 토마스아퀴나스 <b>010-9689-8119</b></p>	<p><b>닥터 플루트 학원</b></p> <p>플루트 전문 음악교육 센터 취미(유치부, 초중등, 성인)/전공/가톨릭 성가반 원장. 김윤희(플로라) <b>758-9839</b> 상담 <b>010-6516-9838</b>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롯데갤러리음 S동 3층</p>	<p><b>유창훈내과</b></p> <p>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전문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유창훈 베드로 원장 신기동 양산우체국 옆 <b>055-785-6000</b></p>	<p><b>거제주단</b></p> <p>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b>632-0696</b> <b>010-9331-6633</b> 진사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b>(주)가나안보청기</b></p> <p>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원산지 : 독일 * 교우특별우대 * 전세계 모든 브랜드 A/S가능 김도현 (모 세) <b>010-7674-2828</b></p>

**음악교육원 전공2급 본심 오르간 연주회**

· 12.13(월) 19:00 · 아음성당  
 연주자: 신지원, 이상아 / 지도교수: 최영희  
 문의: 519-0474~5

**음악교육원 클래식과정 개강**

과목: 기타 성가반주법(12/6), 성악클래스(12/9), 오카리나(12/6 월요일, 12/21 화요일), 미사 선창자교육(12/13)  
 문의: 519-0474, www.bcmusic.or.kr

**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 1.21(금) 09:00~22(토) 20:00 · 음악교육원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및 전례특송곡  
 과목: 발성법, 합창지휘,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중 택일 / 신청기간: 1.10(월)까지  
 수강료: 일반 15만원(마감 이후 16만원)  
 문의: 519-0474, www.bcmusic.or.kr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계약직원 구함**

자격: 컴퓨터 활용 가능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접수: 1.3(월)까지 / 접수방법: 메일(mihee@cup.ac.kr) 또는 우편접수(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편 4층 403호)  
 문의: 510-0507~8, Fax 510-0509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2.13(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12.14(화) 10:00 · 이기대성당  
 · 12.17(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010-9081-1743, 582-1774

**이태석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 12.18(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241-1601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8503-0228(티없으신마리아성심 수녀회), 010-9310-5289(부산지부 회장)

**중고생 살레시오 <3S영성 리더십> 교육**

· 1.7(금)~9(일) 10:00~16:30  
 (단, 마지막날 12:00까지 / 11시 부모님 초대)  
 수료자는 VIDES(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가능  
 문의: 622-2431(살레시오 영성의집, 남천동)

**살레시오 <3S 독서 Day>**

초1~2: 1.10(월)~12(수) 14:00~17:00(선착순 20명)  
 참가비: 6만원(재료비 외 포함), 도서개발구매  
 초3~5: 1.17(월)~19(수) 14:00~17:00(선착순 20명)  
 참가비: 8만원(재료비 외 포함), 도서개발구매  
 문의: 622-2431(살레시오 영성의집, 남천동)

**22년도 국악성가반주장구 수강생 모집**

· 매일 세번째 토요일(월1회) · 대연성당 당당  
 개강: 1.15(토) 13:00~16:00  
 강사: 강수근 신부, 송민영 선생  
 문의: 010-2279-0255, (02)558-2004  
 (국악성가연구소)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희랍어)**

· 1~12월 수요일 19:30~21:30  
 (1년 과정, zoom 수업, 3개월에 30만원씩)  
 지도 및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

**영적 심을 위한 개인, 소그룹 피정**

· 대구 베네딕도 영성관 (1박3식 6만원)  
 문의: (053)313-3425, 010-7103-3425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베네딕도영성관'을 검색하세요

**암환우를 위한 특별피정교육**

· 1.17(월)~22(토) / 접수: 1.10(월)~14(금)  
 문의: (043)211-2113(성모꽃마을)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직원 구함**

담당 업무: 주방 조리사  
 모집 인원: 1명(30, 40대)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접수 방법: 이메일(osbacc@hanmail.net)  
 접수 마감: 12.15(수) / 문의: 753-1135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3.6~8, 3.17~19, 3.26~28, 3.30~4.1, 4.4~6, 4.10~12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쉽'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기간: 2022.3월~12월 / 문의: (02)828-3600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15(월)~2022.2.9(수)(우편신청 가능) /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바로로말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 마감: 1.31(월)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대구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기군] 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 복지서비스학과/상담심리학과/경찰탐정학과/부동산경영학과 / 학생부교과 선발(고교 졸업/검정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  
 [나군, 다군]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 · 학생복지혜택  
 입학상담: (053)850-2580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 센터**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463-7866  
 내방상담: 월~토 10:00~16:30(동래 명륜역 2번 출구) -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토 10:00~16:30: 청소년 상담 및 일반성인 상담  
 조육진 신부(상담학 박사): 영성심리상담 및 고해식 상담 -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상담  
 운영자: 김경애 회장, 전문상담사 및 조육진 신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9일~12월 5일]**

**소계 : 2,210,000원**

명지셋별Pr. 10,000	대연신자 1,000,000
신귀달 500,000	김영호 100,000
김말분 100,000	전재식 300,000
김호정 100,000	김주이 100,000

**누계 : 929,147,55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계좌>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농협 301-0267-8167-11**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천주교성요한의의료봉사수도회	12.18(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b>비잔틴 이콘학교</b></p> <p>&lt;원데이&gt; &lt;초급반&gt; &lt;중급반&gt; 모집합니다</p> <p><b>010-2963-5672</b></p> <p>광안역 6번 출구</p>	<p><b>김용기내과의원</b></p> <p>[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p> <p><b>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b></p> <p>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p> <p>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p> <p><b>상담 및 예약 245-7100</b></p>	<p><b>독일보청기</b></p> <p>동래교차로(수안동)</p> <p>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청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육특별할인, 즉석 A/S</p> <p>방(아브라함) 송(아가다)</p> <p><b>555-5777</b></p> <p>동래구 중원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p>	<p><b>한방화장품 상황미인</b></p> <p>노인냄새제거 천연한방화장료 특허</p> <p>바디워시 바디로션/ 실버 한방화장품</p> <p>교우 30%~50%할인(구매 전 전화요망)</p> <p><b>010-8557-8153, 758-9115</b></p> <p>신영우(프란치스코) www.soosul.com</p>	<p><b>정대수맑은신경과</b></p> <p>(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학박사</p> <p>전)부산대학병원장 치 매·뇌졸 중 신경과 과장 두 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혈압·불면 증</p> <p>남천역 3번출구 <b>612-6100</b></p>
<p><b>법무법인 율강</b></p> <p>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회생, 파산 및 각종법률상담</p> <p>신자는 별도의 상담료 없음</p> <p>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p> <p><b>717-2570, 010-7455-1031</b></p>	<p><b>동래광안 참사랑요양병원</b></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p> <p>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p> <p>광안: 751-1515 김명희(야베스)</p>	<p><b>해맑음농장</b></p> <p><b>해남깎깎절임배추</b></p> <p>1박스 20kg 35,000원(택배 포함)</p> <p>농협 김은재 302-14793-19871</p> <p>대표 김해갑(베드로)</p> <p><b>010-7929-8779</b></p>	<p><b>박숙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b></p> <p>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합병</p> <p>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학박사</p> <p>박 숙 현 (에스델)</p> <p><b>611-3339</b></p> <p>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b>성분도치과병원</b></p> <p>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운영</p> <p><b>752-9011, 9022</b></p> <p><b>010-2755-9011</b></p>